ELIO'S LITTLE DISCOVERIES

The Lantern Clue

등불 단서 · 장소 단서와 물건 단서 나누기



10세 · Day 053 · 함께 읽기 · 5장면



At the evening market, Elio carried the red paper lantern Mum had given him. Its little bulb ran on a battery, not a flame, and its light bobbed beside the bread stalls.



“Look, fish buns!” Bori called. Elio set the lantern on a low wooden crate and ran to see. The buns were warm and round. For a moment, he forgot everything else.



When Elio came back, the crate was empty. The lantern was gone. He looked under the table and behind the honey jars. “Where is it?” he asked. Bori looked too.



“I saw a red glow near the tea stall,” said Bori. “But it moved away.” Elio’s shoulders dropped. Had someone taken his lantern? Mum knelt beside him. “Let’s look for clues,” she said.



First, they found a thin red thread caught on the corner of the crate. Next, Elio noticed small wet spots on the stones. They led past the pickle jars and the stack of bowls.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빨간 등불과 저녁 시장을 함께 보고, 등불을 잃어버리면 어디를 먼저 찾을지 가볍게 이야기해 봐요.

함께 읽을 때

한 장씩 읽으며 빨간 실, 젖은 자국, 젖은 장화 같은 단서를 찾아봐요. 등불이 건전지 불빛이라 불꽃이 없다는 점과, 천이 아니라 처마 아래 선반에 놓였다는 점도 그림에서 확인해요. 엘리오가 누군가 가져갔다고 짐작하는 장면에서는 사실과 짐작을 구분해 줘요.

생각 나누기

등불을 옮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었나요? 실제로 일어난 일과 엘리오의 짐작을 원문에서 하나씩 찾아봐요.

생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시장 그림에서 좋아하는 가게를 골라 봐요. 답을 맞혀야 끝나는 책은 아니에요.

대화와 단서를 따라가는 긴 함께 읽기 원고 초안이에요. 누적 파닉스로 통제한 독립 읽기나 추리 평가가 아니에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